

광 촉매용 항균성 카펫 개발

일본에서 각종 깔개 등 카펫을 제조하는 네고로(根來)산업은 쇼와덴코(昭和電工)와 나고야 공업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 광촉매(光觸媒)용 아파타이트 복합산화(複合酸化) 티탄(Titan) 미분말(微粉末) ” 항균성을 지닌 카펫을 개발하였다. 또한 세라믹(ceramic)을 이겨 넣은 폴리에스테르섬유를 개발하고, 이 섬유로 카펫의 생산을 개시하였다.

항균카펫을 이루고 있는 섬유의 표면에는 산화티탄 미립자가 아파타이트 층으로 덮여 있는 모양으로 고착되어 있다. 섬유속에 이겨 넣은 방식이 아니므로 항균제의 매체를 분해할 염려는 없다. 한편 세라믹을 이겨 넣은 섬유는 진드기와 접촉하면 진드기의 수분을 흡수함으로 진드기가 번식을 못하게 되어 방충효과가 있다.